

생태도시 담양 식품안전 메카로 떠오른다

식약처 식중독 예방·전남도 음식문화개선 최우수상
건강음식점·외식 아카데미 운영...다양한 시책 성과



최형식(오른쪽 세번째) 담양군수가 식약처와 전남도로부터 식품·위생관리 최우수상을 수상한 뒤 직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700만 관광도시’ 담양군이 전남을 넘어 전국을 대표하는 식품안전 메카로 떠오르고 있다.
담양군은 “식품의약품안전처 주관 ‘2016년 식품안전관리 평가’ 식중독예방 분야와 전남도 주관 ‘위생관리 사업평가’ 음식문화개선 분야에서 각각 ‘최우수상’을 수상했다”고 14일 밝혔다.
담양군은 올해 선진 식중독예방정책과 위생서비스평가 등 식품안전 분야 전반은 물론 건강음식점,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 운영, 음식테마거리 육성 등 음식문화 개선을 위해 행정력을 집중해 왔다.
특히 ‘대나무축제’와 ‘남도음식큰잔치’ 등 많은 인파가 몰리는 행사 개최시 음식점 종사자 투병마스크 착용, 테이블

세팅지 보급 등 음식점 위생관리를 강화했으며, 건강음식점 개발, 1대1 컨설팅, 음식점주 역량강화를 위한 외식경영아카데미 등 다 지자체와 차별화된 다양한 특수시책을 추진해 온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 같은 노력으로 올해 대나무 축제와 남도음식문화큰잔치 등 대형 행사를 치르면서도 단 한건의 식중독 사고도 발생하지 않는 성과를 냈다.
박주호 담양군 관광레저과장은 “이번 수상은 관내 670여 음식점소 업주들이 군정시책을 이해하고 적극 실천해 주신 덕분”이라며 “담양의 품격을 높이는 음식문화 개선으로 전국을 대표하는 관광도시로 거듭나겠다”고 밝혔다. /담양=정재근기자 jrg@



박봉순(오른쪽 네번째) 화순부군수가 최근 춘양면 작두콩 작목반으로부터 작구콩 차를 기탁받고 있다.

화순군 나눔캠페인 사랑의 온도 ‘후끈’

연탄·작두콩차·백미 등 온정의 손길 줄 이어

화순군에 연말을 맞아 따뜻한 이웃사랑이 이어지고 있다.
화순군은 “최근 대한석탄공사 화순광업소와 바리오화순에서 어려운 이웃의 따뜻한 겨울나기를 위해 각각 연탄 5000장씩 총 1만장을 후원하고, 춘양면 작두콩 작목반에서도 작두콩차 1000팩(1000만원 상당)을 어려운 이웃을 위해 기탁했다”고 14일 밝혔다.
또 담양군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사회적기업 영농조합법인 ‘광수’는 백미 50포(200만원 상당)를 화순군 저소득 가정을 위해 써달라며 기탁했다.

화순군 관계자는 “연말을 맞아 지역 내·외에서 나눔에 관심을 갖고 참여해 주신데 대해 감사드린다”며 “온정의 손길이 소중한 곳에 쓰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화순군과 전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지난 11월21일부터 2017년 1월 31일까지 72일간 ‘나의기부, 가장착한 선물’이라는 슬로건 아래 ‘희망 2017나눔캠페인’을 펼치고 있다. 문의는 전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061-902-6813)나 화순군 희망복지지원단(061-379-3942)으로 하면 된다. /화순=나성종기자 nsj@

담양군복지재단

기초푸드뱅크 등록

기부식품제공사업

담양군복지재단(이사장 김웅)이 기부식품 제공 사업에 나선다.
담양군복지재단은 “최근 담양군기부식품제공사업장 ‘기초푸드뱅크’ 등록을 마치고 기부식품 제공사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기부식품 제공사업’은 저소득층의 결식문제를 해소하고 식품기부를 통한 나눔문화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단체 또는 주민들로부터 물품을 후원받아 이웃에게 지원하는 사업이다.
복지재단은 기부자 또는 단체에서 후원의사를 밝히면 푸드뱅크 차량이 직접 방문해 물품 수거에 나서며 현금 기부희망자는 물품 외에도 무통장 입금(농협 301-0182-6441-51, 예금주 담양군복지재단)을 통해 후원할 수 있다.
기부가능한 품목은 가정에서 유통기한이 지나지 않은 불필요한 식품, 또는 기업 및 점포에서 생산이나 유통과정 중 발생한 잉여물품으로 쌀, 라면, 통조림, 냉동식품, 채소 등 식료품을 비롯한 비누, 세제, 휴지, 양말 등 생활용품이다. 후원 문의 및 참여는 담양군복지재단 기부식품제공사업팀(061-381-1376)으로 하면 된다.
/담양=정재근기자 jrg@

“상생 그렇게 외치더니... 시내버스 왜 끊나”

장성 진원·남면 주민들

광주시 노선 개편 반발

3000여명 서명 청원서 전달

장성지역민들이 광주시의 시내버스 개편안에 대해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다. 광주시가 내년 2월부터 수익 등을 이유로 장성을 오가는 시내버스의 운영을 중단 또는 단축할 예정이기 때문이다.
14일 장성군 등에 따르면 지난 12월 남면사무소에서 장성군 버스노선 개편 대책위원회의 위원 20여명이 모여 ‘광주 시내버스 노선개편에 따른 반대 성명서’를 발표하고, ‘항의 청원서’와 지역민 3000여명의 서명이 담긴 ‘서명부’를 광주시청에 전달했다.
대책위는 이날 성명서를 통해 “광주시가 민선 6기들어 인근 전남지역 시·군들과 상생을 하겠다고 약속해 놓고 오히려 장성과 광주를 오가는 시내버스를 없애려 한다”면서 “장성지역에서 많은 학생들이 광주로 통학하고 있는 점과 마트, 병원 등과 같은 주요 생활 편의시설을 이용하고



장성군민들이 최근 장성군청 앞에서 광주 시내버스 노선개편을 반대하는 항의 집회를 열고 있다.

있는 만큼 시내버스 노선을 오히려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남면 주민 50여명은 지난 9일 용역설명회가 열린 광주시 광산구청을 찾아 항의하기도 했다. 대책위는 내년 2월부터 새롭게 시행 예정인 광주 시내버스 노선 개편으로 심각한 교통 불편을 겪게 될 진원면, 남면, 서삼면 주민들로 구성됐다.
광주시는 내년 2월부터 장성까지 운행

중인 첨단192, 첨단193, 송정197 등 총 3개 시내버스의 운영을 중단 또는 단축할 예정이다.
광주시는 최근 시내버스 관련 주민공청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52개의 노선 조정안 등을 담은 광주 시내버스 개편안을 발표한 상태다. 장성군도 광주시의 노선 개편안에 대해 유감을 표시했다.
/장성=김용호기자 yongho@

담양군 겨울방학 대학생 인턴 45명 모집

담양군은 “대학생 취업경쟁력 향상과 경제적 자립 기회제공을 위해 관내 거주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겨울방학 중 인턴을 모집한다”고 14일 밝혔다.
모집기간은 16일까지며, 2017년 겨울방

학 대학생 인턴은 공고일 현재 담양군에 주소를 둔 만 18세 이상 29세 이하 대학(교) 재학생 및 휴학생이면 누구나 지원 가능하다.
인턴 참여 희망자는 담양군 홈페이지에

서 응시원서를 다운받아 작성해 지역경제 과로 제출하면 되며, 대리접수 및 읍면사무소를 통한 접수도 가능하다.
군은 공정한 선발을 위해 학력, 자격증, 어학점수 등 객관적 지표에 따라 1차 서류심사 후 2차 면접심사를 거쳐 최종합격자 45명을 선발할 계획이다.
/담양=정재근기자 jrg@

화순군 장애인 콜택시 이용요금 인하

화순군은 “교통약자 이동편의수단인 장애인 콜택시 이용 요금을 지난 1일자로 인하했다”14일 밝혔다.
화순군은 장애인콜택시 기본요금을 1500원에서 500원으로, 추가 1km당 요금은 375원에서 250원으로, 시외요금은 일반택시요금 50%에서 시외서비스요금 1.5배로 인했다.
화순군은 조정된 이용요금을 적용하면 이용자의 요금부담이 45%정도 절감 될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군은 또 현행 2대를 운행하던 장애인콜택시도 추가로

1대를 증차해 장애인 이동편의 수요에 대비하고 있으며, 이용대상과 이용시간도 늘려 장애인의 이동편의와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장애인콜택시 이용대상은 장애인 1.2등급과 시각장애 5등급까지이며 휠체어를 이용하는 등록 장애인, 동반가족 및 보호자다. 이용시간은 주중에는 오전 7시부터 밤 10시까지이며, 주말(토요일)은 오전 8시부터 오후 7시까지다. 전남 광역이동콜센터(1899-1110)로 연락하면 이용할 수 있다. /화순=조성수기자 css@

화순군 도로명 주소 사용률 전남 1위

화순군의 도로명주소 사용률이 전남 도내 최상위권인 1위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화순군에 따르면 도로명주소 사용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홍보 활동을 펼친 결과 전남 우정청을 통해 유통된 우편물 중 도로명주소 사용률이 90.8%로, 지난 10월말 기준 전남도내 자치단체 중 1위를 차지했다. 전남도내 평균 사

용률은 85.6%에 머물렀다.
화순군은 그동안 도로명주소 사용 홍보를 위해 전통시장, 유통회사, 우체국 등을 주기적으로 방문해 적극적으로 홍보활동을 펼쳐왔다.
화순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도로명주소가 일상생활 속에서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홍보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치겠다”고 밝혔다. /화순=나성종기자 nsj@

토지, 6256평

- 전남 나주시 남평읍 우산리 532-1번지 외 6필지
- 토지 6256평 / 계획관리지역
- 매매 - 16억
- 건물 256평, 현재 양어장 운영
- 전원주택 오토캠핑장 펜션 가든 온천 호텔 등등 모든업종 가능
- 개발 후 70억 이상 가치 있음
- 주인직매 H. 010-3605-5000

구례, 산동면 대형모텔

- 구례군 산동면 관산리 732-1
- 대지573평 건물719평 4층건물
- 지리산 온천지구내, 객실58개
- 리모델링 준비중 (4억예산)
- 감정/시세 - 15억
- 대출 - 8억 (4.65%)
- 매매 - 협의
- 동업 - 운영하실 분
- 법인체 인수 가능
- 직매 H. 010-3605-5000